

# 어법과 문법\*

## - 한글 맞춤법을 중심으로

정 희 창  
(성균관대학교)

### 1. 서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는 표기법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등장하는 ‘어법’은 표기법의 영역에 속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로 실현되는 표준어를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일치하는 ‘꼬치’로 적지 않고 ‘꽃이’로 적는 것을 ‘어법에 따라’ 적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어법’에 대해서는 논저에 따라 설명 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표기법과 관련되는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문법까지 확장해서 이해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한글 맞춤법의 ‘어법’이 ‘문법’ 또는 ‘확장된 문법’으로 해석되는 역사적인 이유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법’과 ‘문법’이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의 한글 맞춤법이 표기법에서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문법적인 관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어법과 문법은

---

\* 이 논문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6회 학술 대회(2014. 6. 14.)에서 ‘표기와 문법의 상관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장윤희(인하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고 문법적인 관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과 ‘문법’의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나. ‘어법’과 ‘문법’의 현재적 의미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 ‘문법’의 범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 II. 어법과 문법의 개념과 의미

‘어법’이 표기법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이다.

- (2) 가.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  
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1988)

‘어법’은 한글 맞춤법 이전의 표기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普通學校用 諺文 綴字法(1912)’, ‘普通學校用 諺文 綴字法 大要(1921)’, ‘諺文 綴字法(1930)’ 등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표기법과 어법, 문법의 개념은 이미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표기법과 문법과의 관계는 주시경(1897)에서 엿볼 수 있다. 주시경(1987)에서는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이것이’를 ‘이것시, 이거시’로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고 ‘이것이’로 표기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다고 하였다. 이는 언철과 중철 표기가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문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3) 아즉 글즈들을 올케 쓰지 못하는것들이 만오니 설령 이것이 흘 말을 이것시 이리케 쓰는 사름도 있고 이거시 이리케 쓰는 사름도 잇스니 이논 문법을 몰으는 연괴라 “주시경, 국문론(1897)”

이러한 주시경의 ‘본음주의적 표기법’에서는 문자의 자형을 고정해서 적는 것도 포함된다. 즉 ‘씻어도’를 선택하고 ‘씨서도’를 배제하는 형태주의적 분철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송철의 2010:128~136) 이는 문법과 표기법과의 관계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법’과 ‘어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해할 수 있다.

- (4) 가. 어느 나라의 말에든지 제각금 一定한 法則이 있나니 그 법을 말본(어법)이라 하며, 그 말본을 닮는 學問을 말본갈(어법學) 더러는 줄이어서 말본(어법)이라 하나니라. “최현배, 우리말본(1929)”
- 나. 시대가 바꾸임을 따러 말도 자꾸 바꾸입니다. …… 그 발음이나 어스법이 아주 달라질것입니다 “장지영, 조선어철자법강좌(1930)”
- 다. 표준어에는 一定한 法이 있나니 이를 어법이라 한다. “최현배, 중등 교육 조선어법(1936)”
- 라. 이 말씀 됴됨의 법칙을 ‘문전’, ‘문법’ 혹은 어법, ‘말본’이라고 이른다. “정렬모, 신편 고등국어문법(1946)”

위에서 ‘어법’은 문법과 같거나 문법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의 ‘어법’은 현재 한글 맞춤법의 ‘어법’보다는 넓은 개념이지만 맞춤법의 ‘어법’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시경(1897)에서 표기법과 관련되는 것은 ‘문법’이었는데 이 ‘문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었던 용어가 ‘어법’이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법은 표기법을 포함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1) ‘어법’이 세부적인 문법 현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홍기문(1927:119)에서는 영어의 Mood를 ‘어법’으로 보고 국어에는 ‘직설, 의문, 명령, 공동, 약속’의 어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어법’이라는 용어를 채용한 것은 의외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시경(1897)에서 제시한 것처럼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문법의 원리를 표기법의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할 때, 활용 가능한 말이 ‘어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문법과 대체 가능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았던 ‘어법’을 표기법의 관점에서 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어법’이 표기법을 포함하는 문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시적으로 어법을 바로 문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주시경(1879)와는 달리 ‘먹는 밥을 먹어라’를 ‘명는 바블 머거라’로 적는다고 해서 문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익섭 1991:380~382) 즉, 주시경이 의미했던 ‘문법’과 현재의 ‘문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이라면 ‘어법’을 ‘문법’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는 ‘어법’을 ‘문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다가 ‘넓은 의미의 문법’으로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법’과 ‘문법’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시적인 근거 외에도 사실, 즉 주시경의 ‘문법’이 결과적으로 ‘본음주의 표기법’과 같은 것이었고 이는 현재의 ‘어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어느 단계의 것이든 ‘어법에 맞도록’은 ‘원형을 밝히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이익섭 1992:381)<sup>2)</sup>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문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어법’을 ‘넓은 의미의 문법’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희승 1937, 이희승안병희 1989)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은 주로 형태음소적인 표기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문법’은 국어학의 통사론, 음운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법과 문법

2) 이때의 ‘원형’은 ‘기본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시경의 형태주의적 분철 표기법에 해당한다. 즉 ‘씻어도’는 원형을 밝힌 표기이지만 ‘씨서도’는 그렇지 않다. 이는 분철 표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어법’을 공시적인 규칙일 경우, 기저형을 밝혀 적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박창원 2012:62)

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시경(1879)에서 시작된 표기의 원리는 문법의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문법, 어법으로 통칭하다가 표기와 관련된 것을 어법으로, 나머지를 문법으로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문법과 어법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

- (5) ㄱ. 밥이/\*바비  
 ㄴ. 먹어/\*머거  
 ㄷ. 작은/\*자근-  
 ㄹ. 없애다/\*업새다

(5ㄱ)의 ‘밥이’를 ‘\*바비’로 적지 않는 원리는 실사와 허사를 분석하는 문법의 원리이다. 이는 (5ㄴ)의 ‘먹어’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밥이’와 ‘먹어’의 문법적 분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밥이’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와 단어의 구성이지만 ‘먹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실사와 허사를 분리해서 표기하는 것은 어법이고 조사를 단어로 다루고 어미를 단어로 다루지 않는 것은 문법에 속한다. 즉 문법 가운데 표기와 관련되는 것은 어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문법이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는 것은 단어 여부를 판정하는 문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5ㄷ)의 ‘작은-’은 국어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된 바 있다. 그런데 접두사를 단어보다 작은 단위로 인식해 온 지금의 문법 체계라면 ‘작은-’은 한 형태소일 수밖에 없으므로 어간과 어미를 분철해서 ‘작은-’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sup>3)</sup> (이홍식 2010:25~29) 단어보다 작은 형태소를 다시 더 작은 형태소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현재의 문법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작은-’은 관형어 ‘작은’이 문법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관형사 ‘갖

3) ‘작은-’을 두 형태소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럴 경우 두 형태소의 형태론적 지위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되어 있는 접사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초판에 있던 접두사 ‘작은-’이 삭제되어 있다. ‘작은아버지’와 같은 단어가 학교 문법서에서 합성어의 예로 다루어진 것과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표기 문제와 ‘작은-’의 삭제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은'과 같은 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갓은'이 '갓'과 '-은'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데 비해 '작은'은 '작-'과 '-은'으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서로 차이가 있다. '작은-'의 표기는 분명히 문법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또한 어법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ㄷ)의 '없애다'의 경우 또한 어법과 문법의 구분이 쉽지 않다. 한글 맞춤법 제22항에서 접미사 '-애-'를 설정하고 그 예로 '없애다'를 제시함으로써 국어사전에 접미사 '-애-'가 등재되는 일이 나타났다.<sup>4)</sup> 그렇지만 이는 유일한 예인 '없애다'만을 위한 처리일 뿐 아니라 문법으로 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표기가 문법을 결정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큰사전"에 '업싸다'로 표기된 것으로 보면 '없애다'로 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 III. 문법적 설명의 범위와 한계

#### 1. 형태론

한글 맞춤법에서 문법을 근거로 표기를 설명할 때의 문제로는 필요 이상으로 문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6)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읽어요, 참으리/참으리요, 좋지/좋지요

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를 조사로 명시한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독백체인 '참으리' 다음에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정희창 2013:44~46) 현재의 국어사전에서 독백체에 쓰이는 어미로 '-리오'를 등재한 것을 보면 '-리오'의 존재 가능성은

4) "표준국어대사전"에 접미사 '-애-'를 등재한 것은 '없애다'의 표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위 조항은 ‘참으리요’의 ‘요’가 종결 보조사 ‘요’라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한 셈이다.

아래는 형태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간’과 ‘어근’이 나타나는 조항이다.

- (7)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이때의 ‘용언의 어간’은 학교 문법에서는 ‘어근’에 해당한다. 학교 문법에서 ‘어근’은 파생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어간’은 활용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sup>5)</sup> 이러한 구분은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에서도 나타난다.

- (8)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갈쭙이/갈쭙기	살살이/살사리
꿀꿀이/꿀꾸리	쌩쌩이/쌩쌩기

.....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	------	-----	-----

.....

위에서 밑줄 친 ‘어근’은 파생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제22항에서 ‘어간’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용어를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한 것인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처럼 문법 용어의 사용이 엄밀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5) ㄱ.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ㄴ.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문법과 독서’, 천재교육)

제23항에서는 ‘본문’과 ‘붙임’에서 ‘-하다’와 ‘-거리다’의 결합 여부를 표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예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깍두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깍둑거리다’가 사전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 (9) 깍둑거리다「동사」【…을】조금 단단한 물건을 대중없이 자꾸 썰다.  
 ≒깍둑대다.「비」깍둑깍둑하다.

‘국어연구소(1988)’에서는 이때의 ‘깍둑거리다’와 ‘깍두기’의 어근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깍둑거리다’와 동의어 ‘깍둑대다’, 유의어 ‘깍둑깍둑하다’를 볼 때 ‘깍둑’은 어근으로 유효하다. 이처럼 표기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표기와는 필연성이 없는 문법 현상을 표기의 기준으로 제시한 데 이유가 있다. ‘-거리다’와 ‘-하다’는 용언의 어근에 비교적 활발하게 결합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근과 접미사를 분철하는 표기의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기법을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설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예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히는 것’과 ‘분철하는 것’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를 테면 ‘없애다’와 ‘업새다’는 모두 원형을 밝힌 것이지만 어근과 접미사를 분철한 것은 ‘없애다’이다. 그러므로 어근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과 어근과 접미사를 분철해서 적는 것은 필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10)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같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

제18항에서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도 표기법의 관점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용언을 소리 나는 대로,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같다]는 ‘같다’로, [가니]는 ‘가



니'로 적으면 되지 여기에 '갈-'과 '가-'가 이형태 관계에 있으며 '갈-'이 원칙이라는 식의 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기술은 용언의 어간을 자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가 원칙이고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술해서 '갈-'에서 '가-'로 어간이 변화하는 한 가지 관점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가니, 간, 가오' 등에서 어간이 무엇인지 물을 경우 '가-'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정희창 2014:238)

## 2. 음운론

한글 맞춤법은 표기법이므로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음운론과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다. 한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음운론적인 내용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 (11)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의의	의이
무늬	무니
하늬바람	하니바람
닐리리	닐리리
씩어	씩어 ……

위 조항에서 '닐리리'는 초성에 자음이 있어서 [닐리리]로 소리가 나지만 '닐리리'로 적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 이러한 규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적인 표기일 뿐이다.

제32항에서는 '어제그저께→엇그저께, 가지고→갖고'와 같이 준말 형성 과정에서 단어의 끝음절이 줄어들면서 자음만 남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음운론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음운론적으로 [얼끄

제가 ‘엣그제’로, [간꼬]가 ‘갓고’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엣그제], [간꼬]를 ‘엣그제, 갓고’로 표기하는 것은 ‘어제그저께, 가지고’와의 형태적 연관성을 확보하려는 표기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제 32항 또한 완전히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야
어제그저께	엣그저께
가지고, 가지지	갓고, 갓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제34항에서 음운의 탈락이 필수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3)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왔다	갔다 ……

[붙임1] ‘개,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갬다 ……

‘가아→가’는 필수적인 경우이고 ‘개어→개’는 수의적인 경우이다. 이 설명 또한 표기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표기법의 설명은 [가]는 ‘가’로, [개어]는 ‘개어’로 [개]는 ‘개’로 적는 것이다. ‘가+아’의 결합이 ‘가’로 필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표기법에서 기술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한 기술을 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은 표기법의 영역을 넘어서 음운론적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14)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제51항의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서 볼 때 상당히 이질적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인데 이 항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의 규정에 따르면 [솔지기]와 [솔지키]는 ‘솔직히’로 적어야 하는데 국어에서 ‘솔직히’가 [솔지기]로 소리 나는 음운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러한 표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문법의 규칙에 따라 엄밀하게 규정하던 표기법이 이 조항에서는 다소 느슨해지는 듯한데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의 쓰임을 문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라는 표기법이 그만큼 문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 ‘문법’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원인으로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는 문법적인 지식이 ‘어법’으로 통칭되다가 ‘어법’과 ‘문법’으로 세분화된 역사적인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글 맞춤법의 문법 기술은<sup>6)</sup> 한글 맞춤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일

6) 본고에서의 ‘문법’은 ‘통사론, 형태론, 음운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 문법의

가능성이 있다. 한글 맞춤법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거라]는 ‘가거라’로, [자거라]는 ‘자거라’로 [살거라]는 ‘살거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가-, 자-, 살-’과 결합하는 어미가 ‘-거라’인지, ‘-어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한글 맞춤법의 문법 관련 기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10항~1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는 기술을 보자. ‘신여성’, ‘공염불’의 ‘신’, ‘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전에서는 둘 다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접두사면 접두사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다.

‘거라 불규칙’을 보더라도 기존의 전통 문법, 규범적인 국어사전 등과 차이가 있다. 사실 한글 맞춤법의 문법 기술은 여러 문법적 관점의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법 현상 전체를 온전하게 기술하고 있지도 않아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인 설명도 불투명하다.

셋째, 한글 맞춤법의 문법 기술은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적지 않다. ‘한글 맞춤법’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표기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달리 문법적인 설명까지도 규범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문법 기술 또한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문법 기술은 규범성이 높은 ‘규범 문법’<sup>7)</sup>으로 해석되어 규범적인 국어사전, 교과용 도서 등의 편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8)</sup> 예를 들어 ‘노랑-’에 ‘-네’가 연결될 경우 현실에서는 ‘노라네’와 ‘노랑네’가 모두 수용 가능하지만 한글 맞춤법에서 ‘노라네’만을 선택하고 있어서 교과서적인 해석에서는 ‘노랑네’

---

내용에 해당한다.

- 7) ‘규범 문법’은 ‘기술 문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학교 문법’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문법은 학교 문법보다도 좀 더 규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문법을 특별히 ‘규범 문법’으로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문법을 ‘학교 문법’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 8) 예를 들어 현실에서 쓰임이 위축되고 있는 ‘-거라’ 불규칙에 대해 기술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거라 불규칙’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유보적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더 이상 불규칙이 아니므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는 잘못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과도하게 제시된 문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과 문법을 구별하지 않고 어법을 ‘넓은 의미의 문법’과 같이 폭넓게 기술함으로써 표기법과 문법의 구분이 엄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법’의 확대는 과도한 문법 기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법을 표기법과 관련된 영역으로 축소하고 문법 기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기법과 학교 문법은 물론 문법 교육, 나아가서는 균형 있는 문법 기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법과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던 한글 맞춤법의 문법 기술이 사실은 학교 문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sup>9)</sup>

이러한 문제는 어법과 문법의 전통을 존중한 결과라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표기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참고 문헌

- 강창식, 「한글과 한글 표기법 이론의 체계화에 대하여」, 『국어학』 25, 1995.  
 구분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7, 200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I』, 2000.  
 \_\_\_\_\_,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 『새국어생활』 14-1, 2004.  
 국립국어원,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2011 ㄱ.  
 \_\_\_\_\_,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21-4, 2011 ㄴ.

9) 이러한 점에서 ‘한글 맞춤법 해설’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연구소(1988)’의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해설서를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희창(2015) 참조.

- 국어연구소,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1988.
- 김주필, 「국어 표기사에 있어서 역사성의 인식」, 『어학연구』 28-3, 1992.
- \_\_\_\_\_, 「한글 맞춤법 원칙의 특성과 의미」, 『어문학논총』 24, 2005.
-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 \_\_\_\_\_,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국어교육연구』 21, 2008.
- 박창원,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음운론」, 『국어학회 제34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07.
-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2003.
-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 안병희,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13, 1988.
- 연규동, 『통일 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1998.
- 이기문,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총서18, 한국연구원, 1963.
- 이익섭,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2.
- 이진호,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2008.
- 이홍식, 「형태소와 문법 기술」,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2010.
-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강의(새로 고친 판)』, 신구문화사, 1959.
- 이희승안병희,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1989.
- 장지영, 「조선어철자법 강좌」, 제2판 역대 한국 문법 대계 Ⅲ-8, 박이정, 1930
- 정희창,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된 어문 규범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10권 1호, 2000.
- \_\_\_\_\_, 「규범, 사전, 문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 47, 2010.
- \_\_\_\_\_, 「‘돼-’ 표기의 역사적 해석」, 『한국어학』 49, 2010.
- \_\_\_\_\_,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4, 2011 ㄱ.
- \_\_\_\_\_,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표기와 문법」, 『대동문화연구』 75, 2011 ㄴ.
- \_\_\_\_\_, 「국어 표기법의 문법적 해석」, 『반교어문연구』 34, 2013.
- \_\_\_\_\_,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2014.
- 주시경, 『국문론』, 제2판 역대 한국 문법 대계 Ⅲ-17, 박이정, 1897.
- 최현배, 『우리말본』, 제2판 역대 한국 문법 대계 Ⅲ-17, 박이정, 1929.
- \_\_\_\_\_, 『중등교육조선어법』, 역대 한국 문법 대계(Ⅱ) Ⅲ-44, 박이정, 1936.
- 최형용,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2002.
- 허 응,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문화사, 2000.
- 홍기문, 『조선문전요령』, 제2판 역대 한국 문법 대계 Ⅲ-38, 박이정, 1927.

❖ ABSTRACT

‘Usage’ and ‘Grammar’  
- Focusing on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Jeong, Hui-chang

Initially, the word ‘usage’ in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was used to indicate the whole grammatical knowledge to separate between stems and inflectional affixes and nominals and case markers. Nowadays the word ‘usage’ in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is understood to indicate both ‘usage’ as the principles of the orthographic rule and ‘grammar.’

Even though ‘usage’ and ‘grammar’ can be understood as two different words, the discrepancy between them is not clear. In fact, if examining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e principles of the orthography is written based on the grammar rules. Thus, the original principle is damaged because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depends on the grammar rules too much. In addition,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forces to change the grammar rules when describing them. Incorrect description of the grammar rules often causes the spelling mistak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wo areas such as ‘usage’ and ‘grammar’ when dealing with ‘the orthographic rules’ and describing them.

---

Key Words

어법, 문법, 표기법, 한글 맞춤법, 표기의 원리

usage, grammar, orthographic rules,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the principle of orthography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